

2022 1st Exhibition

한국영상학회 협력전

3.21. - 6.19.

18:00 - 23:00

비디오시티전

네이처 프로젝트전

시민영상전

서울 만리동 광장 앞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22 1st 기획전시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시민이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영상 콘텐츠 등 전자적 빛으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예술행위를 통해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 가능한 미디어 스크린입니다.

2022년 1회 기획 전 ‘한국영상학회 협력전’과 ‘비디오시티전’은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여 시민들의 예술 향유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전시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4점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영상학회 협력전(展)’은 메타버스 환경이 현실에 스며들면서 시공간이 혼합된 각각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에 서사에 대한 인식과 흐름이 세대별, 관념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현재, (사)한국영상학회는 세대별, 나라별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1분 영상을 모아 디지털 너머의 판타지, “메타 판타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비디오시티전(展)’은 판데믹으로 가속화된 “변화”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세대의 새로운 기준이 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디지털화’를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각의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비디오시티전에서는 외로움과 혼란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변화에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순간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순간은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네이처 프로젝트전(展)’은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공모 프로젝트로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2021 네이처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총 9인이 선정되었으며, 분기별 2-3인의 작가 작품을 선보입니다. 1회 전시에 참여한 김재유, 김영태, 김지현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민영상전(展)’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로 1분 이내의 자유 주제로 일상적인 삶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 수기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상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시 공모로 접수 받은 이번 전시에는 최종 2명의 시민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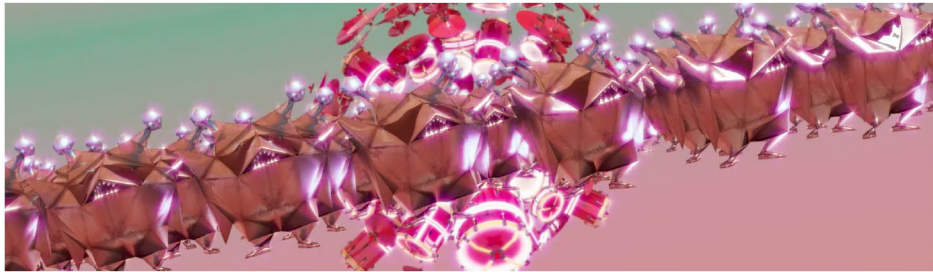
기획 : 이해리

김과현씨	오테원	이해리	한윤종
김혜경	이규동	임재성	Amir shahlan AmirUddin
김혜란	이상은	정희우	Artur Lis
박성환	Tiffany Lee	조인범	Emily Kim
백주미	이원희	조현일	Saeha Collective
손우경	이정은	최원재	Shon Kim
오영재	이지희	한승구	

KOSM.A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한국영상학회**

(사)한국영상학회는 “메타 판타지 : 숏폼 서사(Meta- Fantasy : Short Form Narrative)”를 개최합니다. 메타버스 환경이 현실에 스며들면서 시공간이 혼합된 각각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에 서사에 대한 인식과 흐름이 세대별, 관념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디지털 플랫폼인 미디어 파사드는 공공이 현존하는 현실이며 디지털 너머의 판타지이기도 합니다. (사)한국영상학회는 이번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전시에서 세대별, 나라별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1분 영상을 모아 디지털 너머의 판타지, “메타 판타지”를 보여 주려 합니다. 1분 숏폼의 연결로 이어지는 서사는 새로운 시각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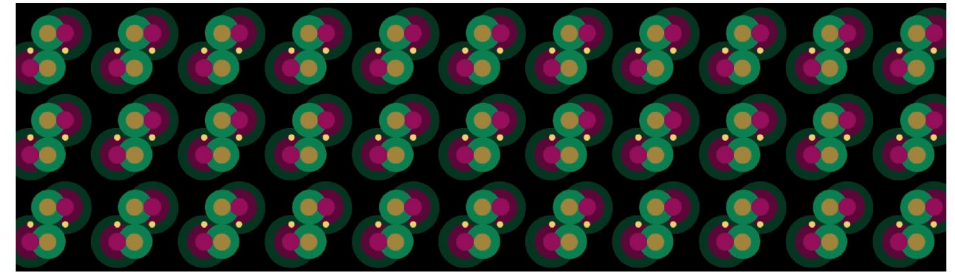
**김과현씨
김원화
현창민**
**Kim & Hyun
Kim, Won-Hwa
Hyun, Chang-Min**

<Chill Dude Chill>은 아이스크림 세계를 침공한 Starvi들에 대하여 아이스크림들이 이들을 물리치고 안정을 되찾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짧은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는 바이러스와 이로부터 위협을 받는 시민들을 각각 Starvi와 아이스크림으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Starvi에게 공격받아 위기에 처하지만, 자신을 다시 방호복 색의 초콜릿으로 코팅하고 반격해 그들의 세계를 되찾는다.

칠 두드 칠
Chill Dude Chill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후원: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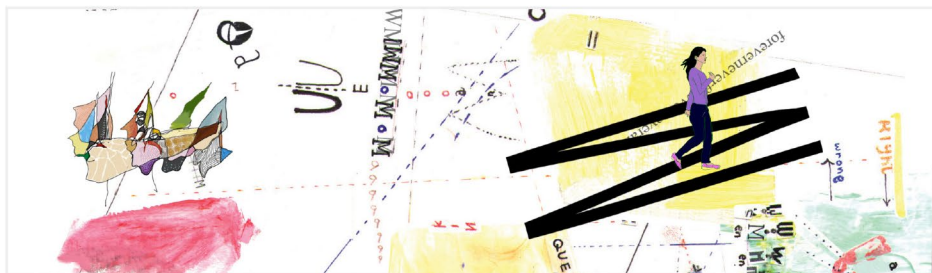
김혜경
Kim, Hye-Kyung

회고
Reminiscence
Single Channel Video,
00:59, 2022

원이라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의 다양한 시각적 변주를 통해 한국 전통의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 한국의 예스러운 멋과 감성이 느껴지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김혜란
Kim, Hye-Ran

W 혹은 M
W or M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W 혹은 M은 시각적 시(Visual Poetry) 드로잉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W와 M은 뒤집으면 같아지는 형태적 특성을 띄며 언어 유희처럼 이들을 결합한 제목인 W or M은 별레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W, M을 이니셜로 포함한 Women과 Men이라는 단어로부터 또 다른 단어와 문장들이 마치 움직이는 생명체(별레)처럼 화면 위로 나타나며 단편적 스토리들을 만들어 낸다.

박성환
Park, Seong-whan

도시 순환
Circulating the City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도시 순환>은 가상의 길을 반복해서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이동을 보여주는데 출발점과 목적지가 정해진 이동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러한 생각은 개별 사람들의 다양한 이동들이 합쳐졌을 때, 그것을 무언가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하나의 상태'로 본 것에서 시작한다. 한편, 화면의 장면들은 반복과 좌우/상하대칭, 그리고 일정한 박자의 소음들이 콜라주처럼 조합되어 전체를 이룬다.

그리고 가로막의 이미지를 화면 사이사이에 넣음으로써 '막다른 길'과 같은 현실감을 관객에게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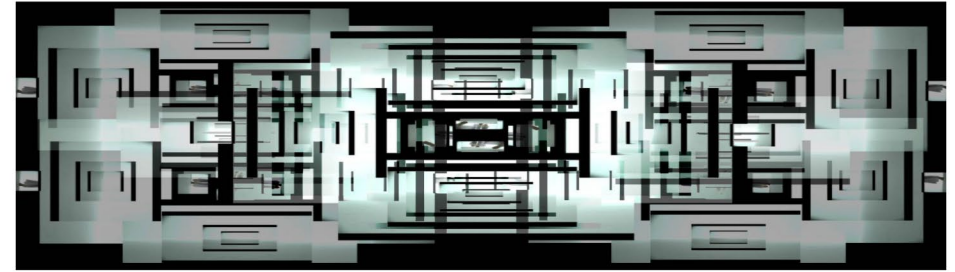
백주미
Paik, Joo-Mee

시간의 풍경 2122001
Timescape 2122001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어느 날 파란 하늘을 보고 받은 순간의 인상은 하나의 기억이 되고, 과거 하늘을 보았던 다른 기억들과 만나 나만의 기억 속 풍경을 완성한다.

현재 새로운 하늘을 마주하는 순간, 기억의 풍경은 눈앞의 풍경과 겹쳐져 새로운 인상을 만들어내고, 내일의 하늘을 기대하게 한다.

Timescape시리즈는 기억-인상-기대로 이어지는 주관적 시간의 흐름을 회화적으로 풍경화한 영상작업이다..



손우경
Son, Woo-Kyung

메아리002
Echos002
Single Channel Video,
01:00, 2015

본 작품은 작가가 직접 춤을 추어 출연하고, 정중동과 느낌의 미학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통한 춤과 신체표현을 실험한다. 발동작을 클로уз업하여 영상으로 표현 가능한 춤사위의 공간성을 모색하였다.

작가는 배우와 무용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본능과 자연의 본질을 중시한다. 총 4분 35초의 작품을 미디어 캔버스 전시용으로 리사이징, 재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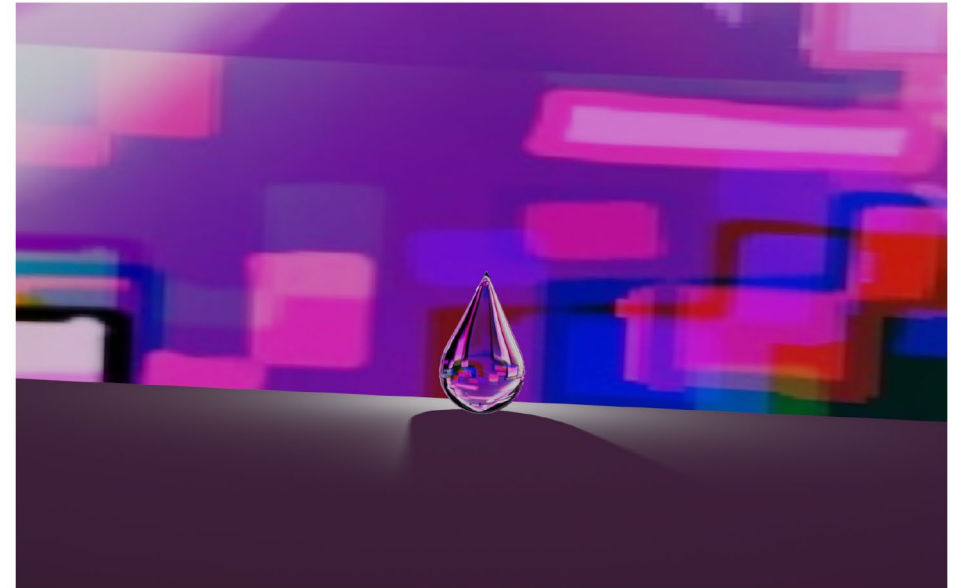
오영재
Oh, Young-Jae

밀키웨이 블라썸 2022
Milky Way Blossom 2022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세상 만물은 그 기원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채 만나고 헤어지며, 태어나고 또 사라진다. 이는 늘 새로운 창조의 순간과 그 흔적의 여정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어진다. "Milky Way Blossom 2022"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하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형상들은 마치 수많은 은하들에서 발산되는 것과 같은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은유하고 있다.

본 작업들에서의 방법론적인 도전은 특히 시지각적 환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다(looking)는 시각적 지각'은 정지된 형상의 지각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적인 지각과정에서의 무한히 열려진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다'는 것은 시각적 인식 과정에서의 형태변화에 대한 의식적 일깨움을 통해 새로운 형상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Milky Way Blossom 2022" 작품은 시지각적 유희에 관한 조형놀이로서 시각적 재현의 새로운 방법과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 실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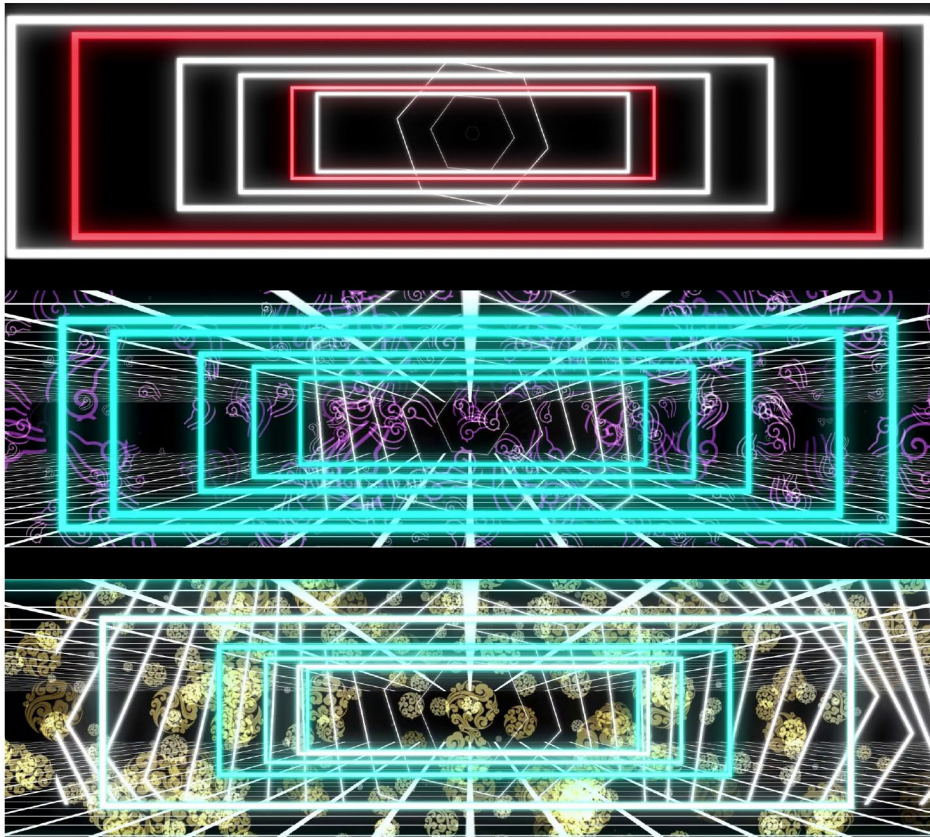


오태원
Oh, Tae-Won

드롭스의 진화
Drops evolution
Single Channel Video,
00:58, 2021

정형화된 드롭스 조형물에 비정형의 물과 빛의 조각들이 투과되면서 물의 극적인 율동감과 흐름을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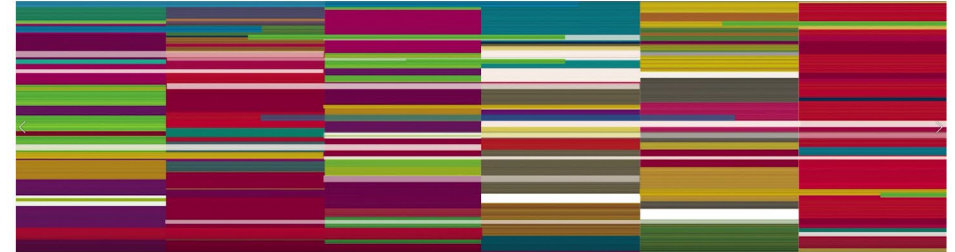
움직이는 드롭스들은 시간에 의한 복합반복으로 시·공간 차원 분리로 연결된 다양한 착시와 환영으로 드러난다. Drops evolution은 움직임의 반복과 생성으로 착시와 환영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규동
Lee, Kyu-Dong

흐름속으로
Flow in to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정의 되어진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축 위에서
부유浮游한다. 공간은 먼 심연에서 근경으로 그리고
원경으로 확대되며 멀어져 간다. 변화하고 흘러가는 흐름
속의 존재들을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의
흐름을 리듬과 색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은
Lee, Sang-Eun

시간의 구성 2022
Composition of Time 2022
Single Channel Video,
00:47, 2022

작가의 시간 관련 작업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미세한 순간들, 사방에
흩어진 기억과 순간의 파편들을 화면 안에 끌어 모으는
작업이다.

선과 색으로 표현된 기억과 순간의 파편들은 서로 쌓이고
스치며 시간의 집적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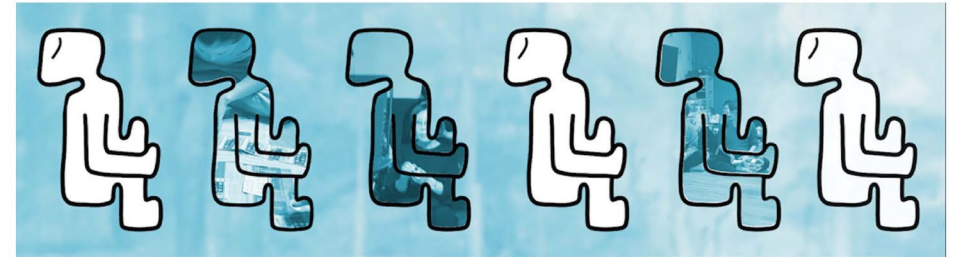


티파니리
Tiffany Lee

VR 리퀴드 파노라마
VR Liquid Panorama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0

VR Liquid Panorama는 구글 지도의 정체성을 기호학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가상현실(VR)로 재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은 2.5D라는 특수한 공간감으로 미디어 기호에 투영된 우리들의 환상을 표현하며, 구글 스트리트뷰가 제공하는 거리 풍경과 이 디지털 풍경을 각자의 심리적 목적대로 전유하는 현대인 사이의 간극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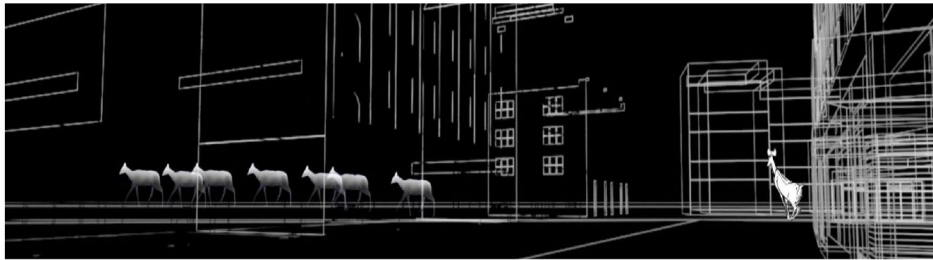


이원희
Lee, Won-Hee

생각의 꼬리물기
My continuously connected
memories
Single Channel Video,
00:50, 2022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한다. 한 생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꼬리 물듯 지나간다. 그 다음 생각이 또 지나가고 그 다음 생각, 또 그 다음 생각...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 추억이 생각나고 그 생각의 꼬리물기로 또 다른 추억이 생각난다. 생각난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계속해서 떠올린다. 다같이 둘러 앉아 빙수를 나눠먹었던 기억,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스피드 퀴즈, 풀빌라에서 튜브타며 장난쳤던 기억 등 여러가지 추억이 계속해서 머리속에 지나간다.

바래져 흐린 파란색선(생각)들이 머리속을 지나가고 연속해서 떠오른 파란톤의 단색화 영상(추억)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새 여러가지 추억들에 잠겨 행복해진 나를 보게 된다.



이정은
Lee, Jung Eun

도시14R_21
city14R_21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신화 속 생명을 되살리는 영상작업을 통해 태고의 생명활동, 역겹의 세월을 흘러온 시간과 공간 속에 남겨진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드(grid)로 이루어진 도시공간의 동물들은 신화시대의 동굴공간으로부터 현대의 디지털 가상공간에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윤회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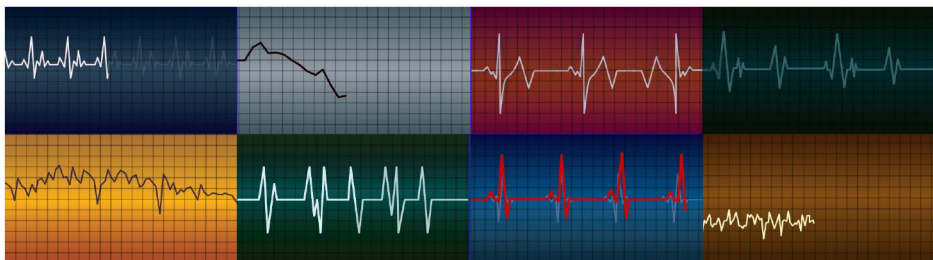
시간과 기억, 생명성과 장소의 문맥을 교차시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되고 있는 기억의 시간들, 삶이 축적된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혜리
Rhee, Hye-Ri

레졸루션 2022 :비비디-바비디-부
Resolution 2022 : Bibbidi-Bobbidi-Boo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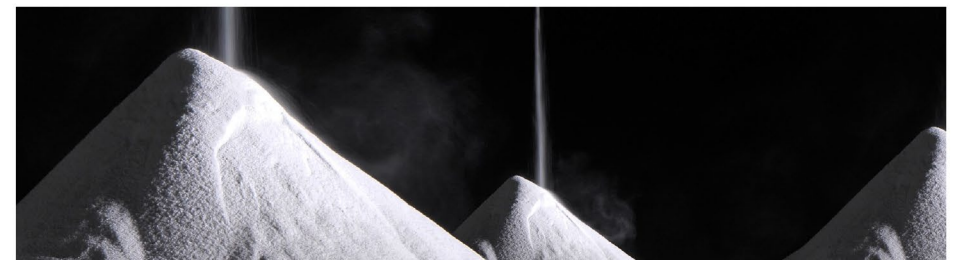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긍정의 각오를 다지게 하는 마법과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특히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 한번쯤의 외쳐보고 싶은 나만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지의 반복적인 겹침 효과를 통해 즉 메타-이미지 기법을 통해 다 채널 주파수와 같은 이미지 효과를 통해 마법 같은 메타 판타지, 판타지 너머의 판타지를 미디어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이지희
Lee, Jee Hee

동시성
Synchrony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몇 초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다양한 스케일의 시간을 공간화 한 작품이다. 짧고 가역적인 흐름과 긴 시간의 비가역적 변화를 대비시켜 대위법적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임재성
Rhim, Jae-Sung

키아로스쿠로
Chiaroscuro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키아로스쿠로'는 빛과 어둠을 뜻한다. 밝은 곳으로부터 어두운 곳으로 가는 점진적인 해조(諧調)에 의하여 삼차원성을 표현하는 회화기법이다. 본 작품은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재해석하여 창조의 근원인 빛을 미립자 형태로 형상화하여 창조의 과정을 미디어 스크린에 표현한 작업이다.



정희우
Jeong, Hee-Woo

길 위에서
Above the Road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서울역의 어느 날을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서울역에 얽힌 기억이 있다. 50년 전 진학을 위해 또는 일터를 찾아 서울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한 서울역, 30년 전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서울역, 또는 KTX를 타고 부산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서울역 신역사 등 모든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상이 아닌 특별한 순간의 서울역이 있다. 사람들의 기억을 품고 있는 서울역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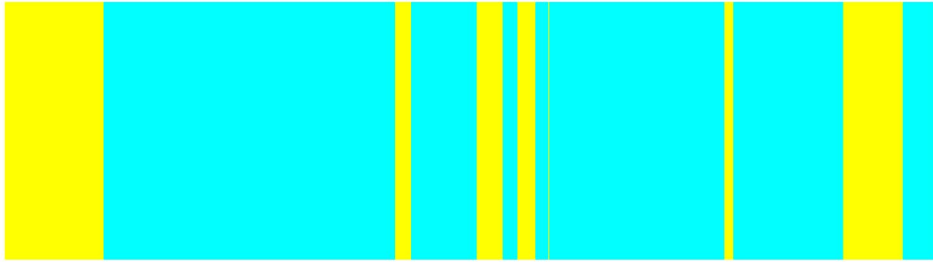
조인범
Cho, In-Bum

감정의 파도
Lwave
Single Channel Video,
00:59, 2022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인 파도에 비유하여 표현한 작업.

감정의 심볼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특히 심장을 형상화한 Heart symbol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이다. 마음속에서 굽이 치는 다양한 모습의 Heart Symbol의 모습을 파도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조현일
Cho, Hyun-Il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기호의 메시지들. 어떤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는 되돌아오기도, 허공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사라져버린 이야기들
Unread Stories
Single Channel Video,
01:02, 2022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어우러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큰 부분이 아닐까 한다. 추상화된 색채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최원재
Choi, Won-Jae

일상의 평행우주론
Parallel cosmology
in daily life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일상 공간 속의 우리는 수평으로 이동하며, 수평으로 정렬된 기억을 통해 공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본 영상을 통해 수평적 이동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다.

시간에 따라 근거리 공간은 연속되어지고 원거리에 있는 태양은 평행우주론의 존재성과 같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었으며, 태양 빛은 곧 시각적 파동으로 변화시켜 표현하였다.

한승구
Han, Seung-Ku

여기에 있다.
Connect here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요셉보이스는 지구의 사막화에 대한 고찰로 7000그루의 떡갈나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현무암 끝에 떡갈나무를 심는 그의 행위는 현재 도시의 녹지율에 상당한 기여를 한 실행력 있는 개념 미술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행위로 인해 녹지율이 풍성해진 현재의 도시를 오마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요셉 보이스의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현재의 서울에 적용하려고 한다. 특히 근대 도시화의 상징인 철도, 즉 서울역 앞에 떡갈나무를 심음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녹지화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요셉 보이스의 정신과 행위를 서울에 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시작으로 본 프로젝트가 각 지역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한윤종
Han, Yoon-Jong

무한한 고리
Infinite Loop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인류는 판타지에 대한 무한한 도전과 실행, 좌절과 실현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반복적인 삶 속에서 시간간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꿈이라는 매개를 시각적으로 표현, 자아와 세상의 연결 중심에 판타지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메타버스 환경 속, 디지털 세계의 무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과 꿈의 연속적인 연결고리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아서 리즈
Artur Lis

서울을 영감으로 하여 만든 영상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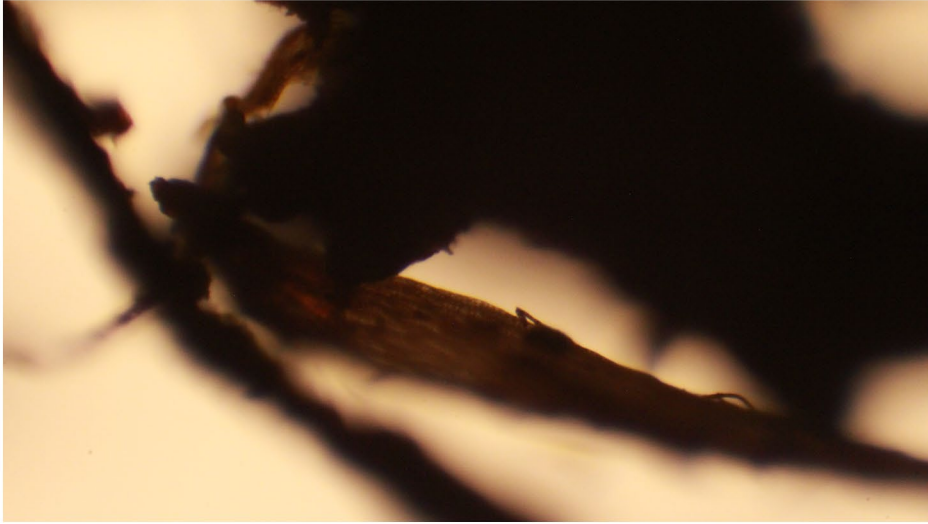
서울_무제
Seoul_Untitled
Single Channel Video,
00:30, 2022



아미르샤란아미루댕
AmirshahlanAmiruddin

구미호를 쫓아서
Chasing Gumihho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2

구미호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영상작업으로 표현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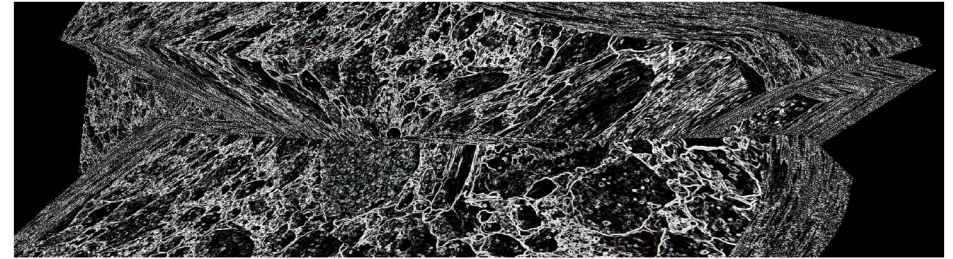
김태희
Emily Kim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Invisible in the Darkness
Single Channel Video,
00:59, 2020

디지털 현미경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지구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복잡한 형태와 유기적인 시스템, 즉류, 룬, 흙을 포착한다.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는 이러한 시각적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깊은 탐구와 빛의 어둠의 병치각각을 발견하게 된다. COVID-19를 계기로 이 작업은 깊고 터널이 뚫리는 어둠과 빛, 밝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희망을 탐구한다.

세하컬렉티브
SaehaCollective

메타 혼합 모멘트
Meta-Mixed-Moment(MMM)
Single Channel Video,
01:01, 2022



현실을 반영하는 가상의 창조물을 탐험하고 창조하는 이야기를 영상작업으로 표현한 작품

기획전시



김시현
Shon Kim

부카니마:산조
BOOKANIMA:Sanjo
Single Channel Video,
00:58, 2022

부카니마(BOOKANIMA)는 'Book'과 'Anima'의 합성어로서 책에게 영화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실험 애니메이션이다. BOOKANIMA, a compound word of 'Book' and 'Anima', is Experimental Animation to give new cinematic life to books.

KOSM·A 한국영상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피터 에어슈만

윤교녕

마티나울프

드미트리 볼니긴

이비 로히트겔브

도미닉 스타우치

작품 이미지와 텍스트의 저작권은 작가와 비디오시티에게 있습니다

“변화”의 폭풍 속에서

‘비디오시티’는 Dr. 안드레아 도메슬릭에 의해 시작된 예술가 지원 비영리 단체로, 2013년부터 전 세계의 비디오 아트와 예술가들을 모아 비디오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비디오시티전’은 판데믹으로 가속화된 “변화”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세대의 새로운 기준이 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디지털화’를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각의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비디오시티전에서는 외로움과 혼란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변화에 적응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순간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순간은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의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총 6명 작가의 7개 작품이 비디오시티의 큐레이터 윤교녕, 폴리나 치조바와 Dr. 안드레아 도메슬릭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작품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규격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피터 에어슈만
Peter Aerschmann

피터 에어슈만 '바벨'
HD video, No sound,
01:3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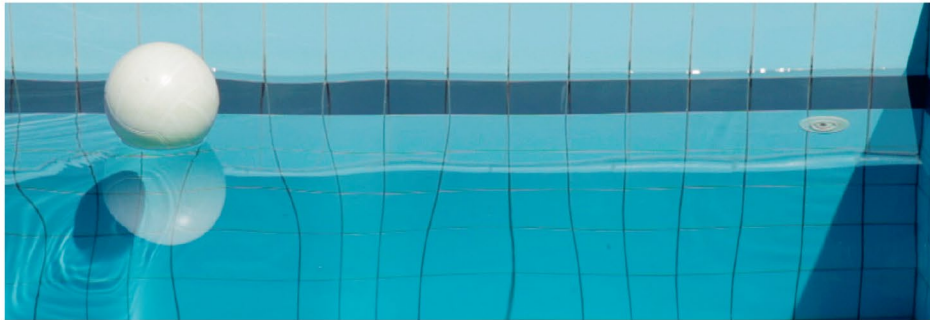
"바벨"은 가상의 도시 속을 끝없이 이동하며 풍경을 담은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공백으로 남아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 기계, 건물의 파편과 확장된 컴퓨터 구성요소를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지어질지, 허물어질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 만은 확실히 보인다.



윤교녕
GyonyoungYoon

채우다,살아가다
Filling in Physical Reality,
Living in Digital Reality
Digital Video, Sound,
01:00, 2020

가족과 집을 떠나 독립생활을 시작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속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며 나는 '내가 속하는 장소'를 현실 공간 대신 디지털 공간에서 재창조하기로 결심 한 뒤 그곳에서 삶의 여백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마티나울프
Martina Wolf

소다 만(灣)수영장
SoudaBay SWIMMING POOL
HD Video, No sound, 60:00,
Extract.03:00, loop, 2013

공은 수면 위에서 그림자와 반사된 빛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공의 움직임과 수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그림자와 반사된 빛은 변화를 거듭한다. 수영장 타일의 기하학적 규칙은 그로 인해 흔들린다.



드미트리 불니긴
DmitryBulnygin

드미트리 불니긴 '불유쾌한 업보'
3D Animation, Sound by THE HET,
03:00, 2010

"불유쾌한 업보"는 빌 비올라의 작품인 "The Path(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의 느리지만 아름다운 행진을 재해석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끝없이 긴 줄, 군중 속의 고독과 고립을 우리의 일상인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낯익은 광경을 통해 담담히 나열한다.



피터 에어슈만
Peter Aerschm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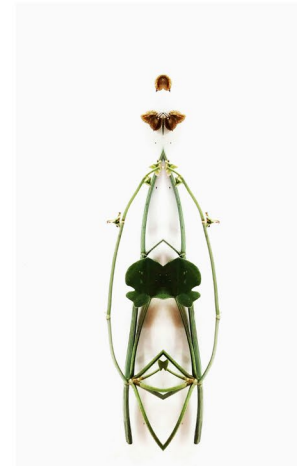
도시를 걷다
CITYWALKING
SD video, no Sound,
01:00, 2005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군중 속에 도시의 리듬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단조롭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화면 밖에서 하나의 무리가 불규칙한 간격으로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간다.

이비로히트겔브
EviLeuchtgelb

모방
Mimesis
Animation film, Sound,
00:31, 2020

“모방”은 다양한 식물의 일부가 재구성되어 움직임 만들어 내는 작품이다. 아날로그 이미지에 만화경 효과를 적용하여 모든 요소들이 반사되고 새로운 순서로 정립된다. 여기에 디지털의 개입을 통해 식물이 증식,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우연히 만들어냈고, 이 배열은 새 생명으로 탄생되었다. 변화와 모방, 식물과 동물 사이의 어딘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



도미니स्ता우치
DominikStauch

횡단
<Coast to Coast>
HD Video, Sound by WolfgangZwiauer,
05:20, 2016

도미니स्ता우치는 구조물, 비표상주의, 육신으로부터의
초월과 무한함을 기반으로 하는 형식의 언어를 사용한다.
또한 고전 콘크리트즘의 영역에서 색상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사운드트랙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역동적이고 다중적인 공간 구성을 만드는 작가이다.

"횡단"은 도미니स्ता우치의 많은 작품들처럼 공간의
가능성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서울이라는 분주한 도시의
활기찬 풍경과 주변 건축물이 이 자율적인 구성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완성될까?



김재유 김영태 김지현

네이처 프로젝트전

‘네이처 프로젝트’전(展)은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공모 프로젝트로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2021년 네이처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총 9인이 선정되었으며, 분기별 2-3인의 작가 작품을 선보입니다. 1회 전시에 참여한 김재유, 김영태, 김지현 작가의 작품들은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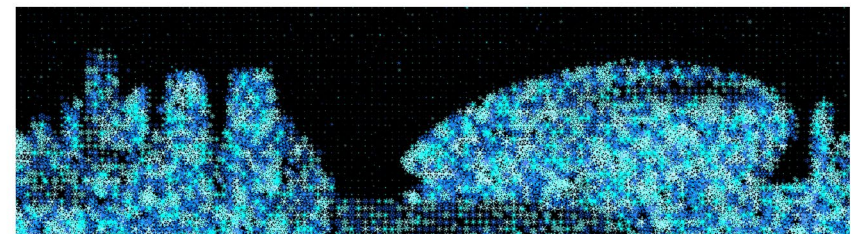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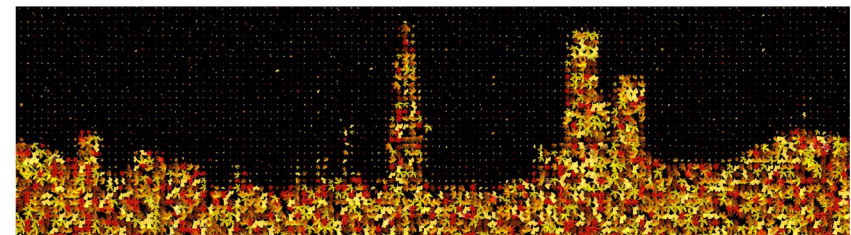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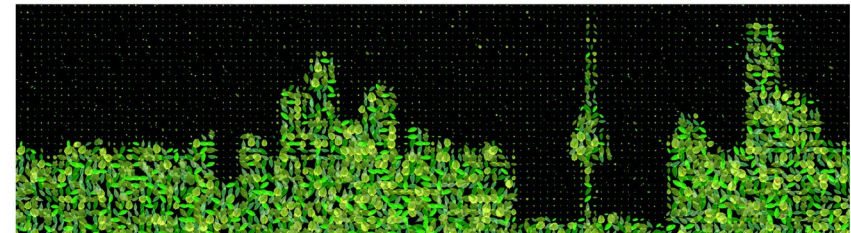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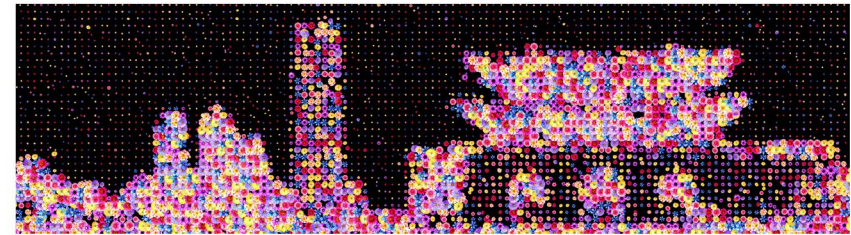
김재유
JaeyooKim

물과 바람 그리고 새
Water, wind and birds
drawing animation,
05:00, 2021

<물과 바람 그리고 새>는 의왕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월암별곡의 '왕송못너머'에 참여한 작품이다. '왕송못너머'는 낯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공미술을 통해 '함께산다'라는 의미로 지역을 넘어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

작년 초가을에 그곳을 찾았을 땐 끈게 서있는 갈대와 목화솜처럼 부드러운 부들 꽃 가루의 움직임을 눈으로, 피부로 느꼈고 유독 눈이 많이 왔던 작년 겨울에는 얼어버린 호수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왜가리와 눈이 와도 곳곳이 왕송호수를 지키고 있던 물닭의 작은 움직임들이 보였다. 이곳을 천천히, 여러번 바라보며 발견했던 큰 움직임에서부터 미세한 것까지, 소리, 촉감 모두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느낀 아름다우면서도 투박했던 경험을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김영태
KIM YOUNG TAE

도심 속 오아시스
The oasis of city
2d media art contents
04:03, 2021

부유하는 물고기를 시작으로 도심 속 실루엣과 자연물 (꽃, 나뭇잎, 낙엽, 눈 결정등)을 결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익숙한 도심 풍경을 자연물과의 시각적 결합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 및 연출한 작품입니다.



김지현
Kim Jeehyun

마음산책
Take a walk in my mind
2D Digital Animation
05:10, 2022

사람들의 마음속엔 '작은 숲'이 있다. 그곳엔 푸른 나무와 산이 있고, 미소로 인사하는 꽃과 반짝이는 별이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걷는 자신이 있다.

'마음산책'은 화선지에 먹을 사용해 그린 그림을 디지털 작업을 거쳐 제작한 영상작품으로 마음속의 작은 숲을 거닐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위로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먹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먹이 화선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번지고 스며드는 모습은 자연이 우리 곁에 머물며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과 닮아있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고 여유롭게 걸으며 바쁘고 복잡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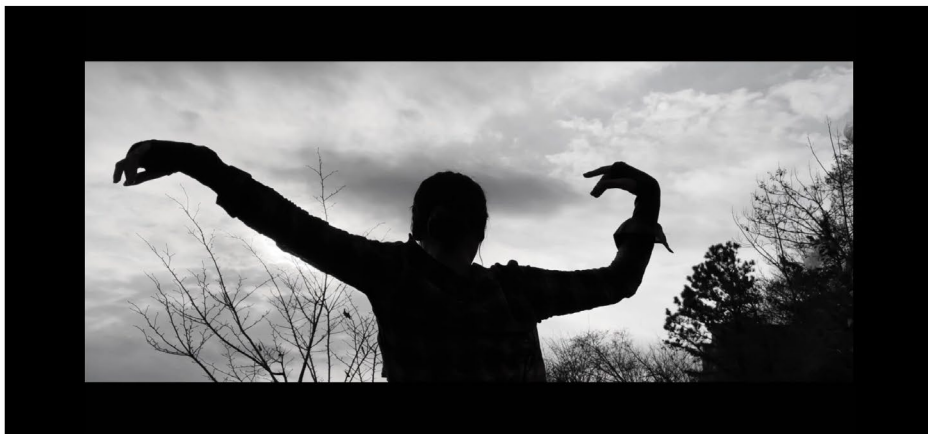
Nature Project

이봄 최사빈

시민영상전

'시민영상'전(展)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로 1분 이내의 자유주제로 일상적인 삶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상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시 공모로 접수 받은 이번 전시에는 최종 2명의 시민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봄
leebom

탈출
get out of there!
Video,
1:17, 2021

누워있는 것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뭐든지 적당히 하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이지요.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오래도록 지내다보면 그것은 몸에 달라붙어 우릴 갇아먹고, 세상은 온통 머리 속에서만 펼쳐질 것 입니다. 달리고 달려도 흑백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일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최사빈
CHOI SA BIN

너는 의자가 왜 좋은데?
Why do you like chairs?
Photo Video, sound,
00:59, 2021



<너는 의자가 왜 좋은데?>는 사진과 영상이라는 매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열망에서 출발한 Photo Video(사진들을 이어붙여 만든 짧은 이야기)의 에필로그라 할 수 있다. :

의자를 좋아해서 의자만을 찍는 사진가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진가에게 묻는다. "너는 의자가 왜 좋은데?" "슬프지만, 슬프지 않아서" 사진가는 '의자'가 앉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 앓을 우리가 없다면 의자도, 우리도 너무 슬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가는 머무는 곳이 아닌 길 위,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에 아무렇게나 놓인 의자를 볼 때 시선과 마음이 함께 간다. 어떤 사람이 그 의자를 갖다 놓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의자에 앉았는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슬프지 않기 때문이다.

오시는 길

종림, 만리동방면 진입(서울로 종점부에서 진입)

지하철

충정로역(2,5호선) 5번 출구에서 약 500m 이동

버스

손기정체육공원입구(02-102)

손기정체육공원입구(03-228)

간선 : 173, 261, 463, 604, N16

마을버스 : 용산04

편하게 올라오시는 방법

엘리베이터 1호기 이용

우리은행 종림동 지점 앞 만리동광장, 쉼터 방면

참고하세요

서울로 5번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은행 종림동 지점에 설치된 미디어캔버스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개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전시 감상을 도와줄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세요.

미디어아트 및 영상 작품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0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검색>다운로드

02.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기능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작품 감상과 함께

직접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보세요.

발행일 2022.03

발행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발행인

주최 서울특별시

운영 ㈜디노마드

문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빛디자인팀

운영사무국 010-2583-7232



장소협찬



전시 사운드

전시 카테고리에서 각 작품들의 상세소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운드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세요.



환경보호 캠페인(동물의 숲)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동물의 숲. 동물 친구들에게 환경보호

문자를 선물해주세요.



환경보호 캠페인(한강물결 살리기)

서울로미디어캔버스 한강물결 살리기. 깨끗한 한강을 위해

문자를 선물해주세요.

